

삼성토탈 “석유화학은 브릿지산업”

고홍식 사장, 9월1일부 서울대 강의 ... 미래 성장산업에 기간산업 강조

고홍식 삼성토탈 사장이 9월1일부터 서울대 강단에 선다고 삼성토탈측이 8월31일 밝혔다.

고홍식 사장은 1학기 동안 서울대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학기술과 경영(전공선택 과목) 강좌를 개설해 일주일에 3시간씩 13주간 강의할 예정이다.

한양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학사 출신의 고홍식 사장은 1995년 삼성그룹 화학소(小)그룹 전략기획실장을 맡은 이래 줄곧 삼성 화학 계통에서 일해왔으며 2004년부터 현직을 맡고 있다.

고홍식 사장은 한국경제의 미래와 화학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첫 강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은 사양산업이라는 기존 인식과 달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대비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미래 성장산업이자 첨단산업을 잇는 브릿지산업”이라며 기간산업으로서의 석유화학산업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저작권재(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8/31>